

『韓国語教育研究』(第7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감정별 억양  
— 「아 그래요」를 중심으로—

Jang Won, CHOI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7年9月

#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감정별 억양 — 「아 그래요」를 중심으로—

Jang Won, CHOI<sup>1</sup>

본고는 한국어 억양의 기능 중에서 학습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감정, 태도의 전달 기능을 영어권 학습자들은 어떻게 음성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그 발화의 의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를 조사한 연구이다.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감정별 발화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가의 일치율 및 분포에 관해서이다. 「중립」 평서문의 발화에서는 38.8%, 의문문의 발화에서는 30.2%(이하, 평서문(의문문))의 결과였으면, 「놀람」에서는 39.7%(38.2%), 「의심」에서는 18.0%(21.1%), 「낙담」에서는 54.8%(39.5%), 「기쁨」에서는 22.6%(19.0%)의 결과로, 전체의 평균 일치율은 34.3%(29.6%)였다. 이러한 결과 안에서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발화에서는 중립과 낙담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놀람의 발화가 기쁨으로 판단되거나, 기쁨의 발화가 놀람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많았다. 또한,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의 발화 중 「의심」의 발화가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여 「의심」의 발화가 학습자에게는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가장 전달 되기 어려운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과 문말 억양의 시각적 교육 방법을 고안하고자 할 때 기쁨과 놀람의 감정은 명확하게 음성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감정인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 본다. 놀라면서 기쁨을 표현 할 수 있고, 기쁨과 동시에 놀라움의 표현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적어도 문말 억양의 시각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정 분화의 단순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 1. 들어가기

본고는, 한국어의 감정·태도를 나타내는 문말 억양 교육의 일환으로 「아 그래요」의 발화문을 이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영어권 학습자, 그리고 일본인 학습자의 감정별 억양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그

<sup>1</sup>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15K02722.

목적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문말 억양의 특징,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말 억양의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영어권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국어 억양의 기능 중에서 학습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감정, 태도의 전달 기능을 영어권 학습자들은 어떻게 음성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그 발화의 의도가 한국어 모어화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

## 2. 선행연구와 문제의 소재

본 연구는 최장원(2016)<sup>2</sup>에서 보고한 한국어 모어화자의 「아 그래요」의 연구 보고 내용과 선행 연구 및 문제의 소재, 실험 방법 및 분석 방법을 동일화 시켜서 진행한 실험으로 분석 대상을 영어권 학습자로 한 연구이다. 이중 인용을 피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문제의 소재, 실험 방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각주에 표시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호영(1996)에서는 억양의 기능을 문법적 기능과 화용론적 기능,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실천 보고 및 제안 등을 살펴 보면, 이한규(1996)에서는 「그래」의 의미를 세분하여 음조와 기호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즉, Yes-No 의문문에서는 문말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의문문에서는 「?」를 사용하고, 가벼운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를 붙이는 것으로 「그래」의 담화적 기능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어 음성 교육 방법의 연구 분야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어. 미키(三木, 2015)는, 일본어 음성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그래요」에 상응하는 「そうですか」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운율적인 문제점을 교재에 표시된 문말 기호가 학습자의 억양의 오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정명숙(2003)에서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음성을 수록하여

<sup>2</sup> 崔壯源(2016) 「韓國語母語話者の感情別イントネーション-「아 그래요」を中心に」 『韓國語教育研究』 第6号、日本韓國語教育学会、p 130-150

분석한 결과, 일본인 학습자의 결과를 보면, 일본어의 고저 악센트의 영향으로 HL의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점, Yes-No 의문문에서는 상승조가 현저하지 않으며, 문말을 급격하게 올리는 LH%로 실현 되는 점,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하강과 상승이 같이 보여지는 한국어의 운율 패턴과는 다르게 상승만이 나타나는 H%로 발화하는 문제점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영어권 학습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은애외(2008:101)에서는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은 억양의 사회 언어학적 기능과 비교하였을 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에 위한 그 억양 패턴의 일반화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에 응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의문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과연 문말 억양의 일반화는 가능한 것인가? 즉, 한국어 화자의 감정별 억양 패턴을 일반화 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이다<sup>3</sup>.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일본인 학습자의 문말을 급격하게 올리는 LH%와 상승만이 나타나는 H%의 문말 억양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도 보이는 특징으로 과연 일본인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인가, 영어권 학습자의 발화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특징은 교과서에 있는 문말 기호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로 정리 할 수 있다.

### 3. 조사 방법

먼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sup>4</sup>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20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음성 수록은 중립·놀람·의심·낙담·기쁨의 5 가지 감정으로 발화한 「아 그래요」의 발화를 한국어 모어화자 47 명에게 청각 평가를 의뢰했다. 평가 의뢰는 랜덤으로 제시한 「아 그래요」의 학습자 음성이 중립·놀람·의심·낙담·기쁨 중 어떤 의도로 평가 되는지를 알아보아 학습자의 감정 발화의도가

<sup>3</sup> 이 점에 대해서는 최장원(2016)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결과를 보고하여 일반화가 가능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조사 결과로 보고 할 예정이다.

<sup>4</sup> 미국 볼더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네이티브에게도 전달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조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과제 1: 감정 별 발화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 평가의 일치율 및 분포
- 과제 2: 감정 별 발화의 청각 평가를 기초로 한 상위권(A), 중위권(B)의 음향 분석 결과.
- 과제 3: 문말 억양 패턴과 문말 기호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한 음향 분석 결과

### 3.1 발화 자료 및 감정 표현<sup>5</sup>

먼저 녹음은 비압축 리니어 PCM 녹음 형식을 탑재한 IC 레코더 ICD-UX544F와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접속하여 녹음했다.

발화 수록에는 하기의 <표 1>을 사용했다. 발화 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10 명은 「아 그래요」에 문말 기호가 없는 자료부터 녹음을 시작하였다. 이 문장을 편의상 평서문 문장으로 한다. 평서문 녹음을 한 후 「아 그래요?」에 의문부호가 있는 자료를 한 번 더 녹음하였다. 편의상 의문문 문장으로 한다. 나머지 10 명은 그 순서를 반대로 하여 실험 순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발화 자료

A: 미나 씨도 와요?
B: 네 미나 씨도 와요.
A: 아 그래요. & 아 그래요?

학습자는 각 감정별 발화를 세 번 발화하여 두 번째 발화 내용을 청각적 평가와 음향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감정 표현에 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sup>5</sup> 발화자료 및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최장원(2016)과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2> 감정 설명 내용**

감정	설명 내용
중립	납득, 동의로 생각해도 좋다. 미나 씨가 온다는 정보를 알겠다는 정도의 표현
놀람	미나 씨가 온다는 정보를 듣고, 의외라고 느끼며 놀랐을 때의 표현
의심	미나 씨가 온다고는 하지만 항상 안 온 적이 많아서, 그런 태도 때문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표현
낙담	미나 씨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온다고 해서 낙담, 실망 할 때의 표현
기쁨	미나 씨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온다고 해서 기뻐했을 때의 표현

### 3.2 분석 방법

#### 3.2.1 청각 평가 및 음향 분석방법

학습자 20 명이 발화한 5 가지의 평서문 감정별 발화 합계는 총 100 개이다. 여기에 문말 의문 부호가 있는 의문문 음성 100 개를 합쳐서 200 개의 음성을 각각 과일화하여 랜덤 배치하였다. 이 랜덤 배치한 음성을 한국인 모어화자 47 명에게 [아 그래요] 부분만을 들려주고 중립·놀람·의심·낙담·기쁨의 5 가지 의도 중 어떠한 의도로 들리는지를 판단시켰다. 청각 평가 실험에서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25 개 항목씩 실험을 하고 휴식 시간 5 분을 설정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상기의 과제 1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향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 단위를 Hz 에서 세미톤으로 변환하여 나타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결과 값은 3.2.1 에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청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과제 2 의 상위권(A,a), 중위권(B,b)의 학습자 발화에 대한 음향 분석 지표를 이용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음향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과제 3 의 문말 억양 패턴과 문말 기호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 4. 결과

영어권 학습자 20 명이 발화한 「아 그래요」의 5 가지 패턴, 전 200 개의 감정별 발화내용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 47 명이 청각적 평가를 한 9,400 개의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 4.1 감정별 발화에 대한 청각 평가자의 일치율과 분포

먼저, 과제 1 의 감정별 발화에 있어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가 일치율을 보도록 하겠다. 47 명의 평서문 평가에 있어서의 평균 일치율은 34.2%(표준편차:27.8)였다. 또한 의문문 발화에 있어서의 평균 일치율은 29.6%(표준편차:23.1)로 의문 부호가 있는 발화 리스트보다는 문장 말에 의문 부호가 없는 평서문의 발화 음성에 대한 평균 일치율이 5.2% 높은 결과였다. 최장원(2016)에서 보고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각 평가 결과를 좌측에 위치 시키고 이번 조사의 대상이었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측에 위치시켜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인과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발화에 대한 청각 평가 결과의 일치율 (%)

	한국인		영어권 학습자	
	평서문		평서문	의문문
전체	38.2%	:	34.2%	29.6%
중립	41.7%	:	38.8%	30.2%
놀람	40.0%	:	39.7%	38.2%
의심	24.6%	:	18.0%	21.1%
낙담	52.8%	:	54.8%	39.5%
기쁨	35.3%	:	22.6%	19.0%

<표 3>의 결과를 보면, 중립·놀람·의심·낙담·기쁨의 5 가지 감정으로 발화한 「아 그래요」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발화자의 의도대로 전달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는 물론 학습자의 발화를 대상으로 하여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어권 학습자의 결과에서는 문장 말의 의문 부호의 유무가 모든 학습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지만 소수의 학습자들에게는 의문 부호는 상승조라는 의식이 우선하여 문말 억양의 상승조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말 평탄조로 나타나는 중립과 낙담의 발화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발화자와 청자간의 감정 의도의 일치율을 낮추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평서문의 결과는<sup>6</sup> 중립 41.7%, 놀람 40.0%, 의심 24.6%, 낙담 52.8%, 기쁨 35.3%로 중립, 놀람, 낙담의 평가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어권 화자의 경우에는, 기쁨의 평가 일치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결과와는 다르게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문말에 위치 시킨 의문 부호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중립의 발화에서 38.8%→30.2%로 -8.6%, 놀람의 발화에서 39.7%→38.2%로 -1.5%, 의심의 발화에서 18.0%→21.1%로 +3.1%, 낙담의 발화에서 54.8%→39.5%로 -15.3%, 기쁨의 발화에서 22.6%→19.0%로 -3.6%의 결과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유의한 차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문말에 의문 부호가 있음으로 해서 중립의 의도를 갖는 발화와 낙담의 의도를 갖는 발화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지각에 있어서는 그 일치율을 큰 폭으로 하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하기의 <표 4>에서 각 감정별 평가의 분포 결과를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sup>6</sup> 최장원(2016)에서는 문말 의문 부호가 있는 의문문의 음성은 수락을 하지 않았다. 본 실험 전에 실시한 10 명의 예비실험 결과에서 문말 의문 부호가 있는 의문문 발화와 없는 평서문 발화에서 핏치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5 가지 감정에 따른 핏치의 차이만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표 4>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청각 평가의 분포(%)

	평가 발화	중립	놀람	의심	낙담	기쁨
	평서문 (의문문)	중립	<b>38.8</b> (30.2)	13.3 (18.1)	15.5 (18.6)	27.6 (26.8)
놀람		16.7 (20.3)	<b>39.7</b> (38.2)	12.0 (15.7)	11.8 (7.9)	19.8 (17.9)
의심		26.6 (26.1)	20.4 (17.4)	<b>18.0</b> (21.1)	31.1 (30.2)	3.9 (5.2)
낙담		22.1 (24.9)	4.5 (12.4)	12.3 (19.5)	<b>54.8</b> (39.5)	6.3 (3.7)
기쁨		24.0 (21.4)	29.8 (33.2)	14.4 (13.8)	9.3 (12.6)	<b>22.6</b> (19.0)

먼저, 문말에 의문 부호가 있음으로 해서 모어 화자에게 전달되는 발화자의 의도와의 일치도가 낮았던 중립의 발화와 낙담의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다. 평서문의 중립 발화는 38.8%의 일치율이었지만 의문문의 중립 발화는 30.2%로 평서문의 중립 발화의 일치율과 비교하여 -8.6%의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문 부호가 있음으로 해서 중립 발화가, 놀람(+4.8%), 의심(+3.1%), 기쁨(+1.5%)의 의도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엇 볼 수 있다. 반면, 평서문의 낙담 발화는 54.8%의 일치율로 나타났지만 의문문의 낙담 발화에서는 39.5%로 -15.3%의 감소폭을 보였다. 의문 부호가 있음으로 해서 낙담 발화가, 중립(+2.8%), 놀람(+7.9%), 의심(+6.8%), 기쁨(-2.6%)의 의도로 평가 받고 있어, 낙담의 발화에 의문 부호는 놀람과 의심의 발화로 전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후에 4.2의 음향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다.

#### 4.2 감정별 발화에 대한 청각 평가의 상위군·중위군의 음향 분석 결과

다음으로 과제 2로 설정한 감정별 발화의 청각 평가를 기초로 한 상위권, 중위권의 음향 분석 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말에 나타나는 감정별 발화 「아 그래요」의 평서문 발화와 「아 그래요?」의 의문문 발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학습자 20명의 발화를 한국어 모어 화자 47명이 평가한 결과로부터 가장 일치율이 높은 상위권의 발화와 중위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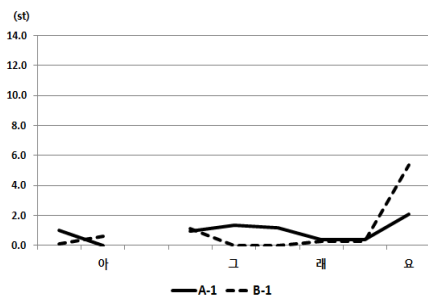
발화를 추출하여 <표 5>에 나타냈다.

**<표 5> 영어권 화자의 감정별 대화에 대한 상위권과 중위권의 평가 분포 및 일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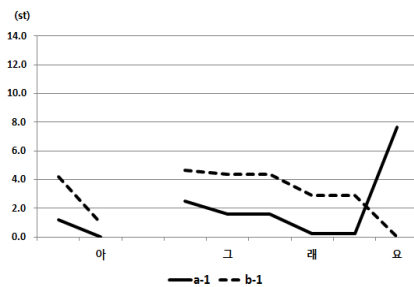
			평가자수(47 명)					일치율(%)				
			중립	놀람	의심	낙담	기쁨	중립	놀람	의심	낙담	기쁨
중립	평서문	A-1	35	3	1	8	0	<b>74.5</b>	6.4	2.1	17.0	0.0
		B-1	25	13	3	3	3	<b>53.2</b>	27.7	6.4	6.4	6.4
	의문문	a-1	31	4	7	5	0	<b>66.0</b>	8.5	14.9	10.6	0.0
		b-1	23	14	4	6	0	<b>48.9</b>	29.8	8.5	12.8	0.0
놀람	평서문	A-2	4	<b>39</b>	3	1	0	8.5	<b>83.0</b>	6.4	2.1	0.0
		B-2	5	27	4	0	11	10.6	<b>57.4</b>	8.5	0.0	23.4
	의문문	b-1	3	<b>33</b>	2	0	9	6.4	<b>70.2</b>	4.3	0.0	19.1
		b-2	3	24	19	0	1	6.4	<b>51.1</b>	40.4	0.0	2.1
의심	평서문	A-3	9	5	<b>29</b>	2	2	19.1	10.6	<b>61.7</b>	4.3	4.3
		B-3	5	12	<b>19</b>	11	0	10.6	25.5	<b>40.4</b>	23.4	0.0
	의문문	a-3	5	14	<b>22</b>	5	1	10.6	29.8	<b>46.8</b>	10.6	2.1
		b-3	9	21	<b>8</b>	2	7	19.1	44.7	<b>17.0</b>	4.3	14.9
낙담	평서문	A-4	2	1	0	<b>44</b>	0	4.3	2.1	0.0	<b>93.6</b>	0.0
		B-4	15	0	6	<b>26</b>	0	31.9	0.0	12.8	<b>55.3</b>	0.0
	의문문	a-4	0	0	1	<b>46</b>	0	0.0	0.0	2.1	<b>97.9</b>	0.0
		b-4	15	1	6	<b>25</b>	0	31.9	2.1	12.8	<b>53.2</b>	0.0
기쁨	평서문	A-5	0	6	0	0	<b>41</b>	0.0	12.8	0.0	0.0	<b>87.2</b>
		B-5	2	17	2	0	<b>26</b>	4.3	36.2	4.3	0.0	<b>55.3</b>
	의문문	a-5	0	11	0	1	<b>35</b>	0.0	23.4	0.0	2.1	<b>74.5</b>
		b-5	15	5	4	0	<b>23</b>	31.9	10.6	8.5	0.0	<b>48.9</b>

평서문의 발화 중 가장 상위권의 일치율을 보였던 발화는 A, 중위권은 B, 그리고 의문문의 발화 중 가장 상위권의 일치율을 보였던 발화는 소문자 a, 중위권은 b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성으로부터 추출한 각 음절의 시점과 종점의 F0치를 이용하여 문말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여기에서는 각 감정별 문장 말 음조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문장 말 부호, 즉 의문 부호의 유무에 따른 학습자의 음조의 변화 양상은 4.3 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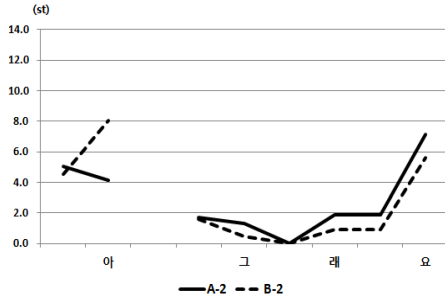
<표 5>를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 47 명의 전원 일치 평가를 받은 학습자의 발화는 없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발화는 의문 부호가 있는 낙담의 발화에서 97.9%로 1 명이 의심으로 평가한 결과 이외에 46 명이 낙담으로 평가한 결과이었다. 중립 발화에서는 74.5%가 가장 높은 결과였으며, 놀람에서는 83.0%, 의심에서는 61.7%가 가장 높은 결과였다. 이 중에서 의심의 전체 평균의 일치율을 보면 평서문이 18.0%, 의문문이 21.1%로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의심 발화에 대한 중위권에서의 평가 결과 또한 17.0%인 것을 보더라도, 학습자에게는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또는 모어 화자에게 가장 전달 되기 어려운 감정 표현이 의심의 발화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발화에서는 87.2%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 결과였다. 상기 <표 5>에 해당하는 핏치 곡선의 결과를 하기의 <그림 2>에서 <그림 11>에 나타났다. 핏치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 내의 실선은 청각 평가 결과로부터 가장 높은 결과를 얻은 발화로서 상위권을 나타내며, 점선으로 나타낸 결과는 청각 평가 결과로부터 50%대의 일치율을 보인 중위권의 결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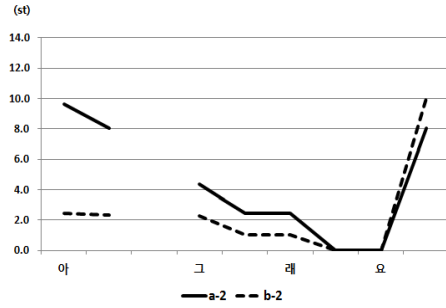
<그림 1> 평서문: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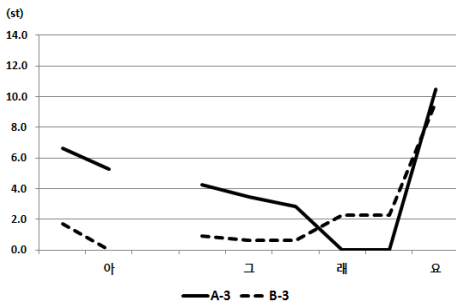
<그림 2> 의문문: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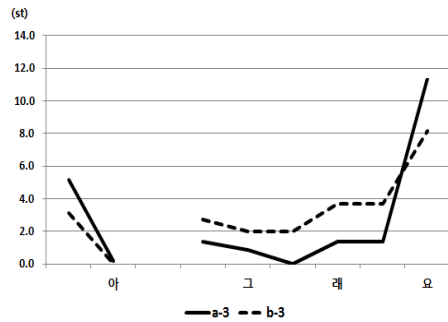
<그림 3> 평서문: 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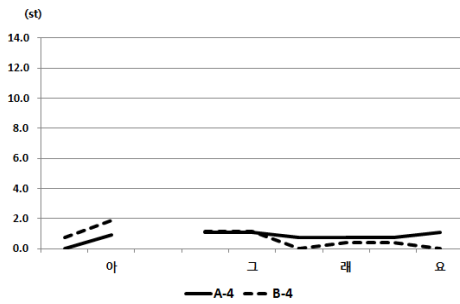
<그림 4> 의문문 : 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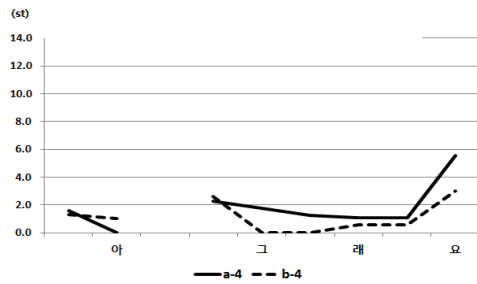
<그림 5> 평서문 :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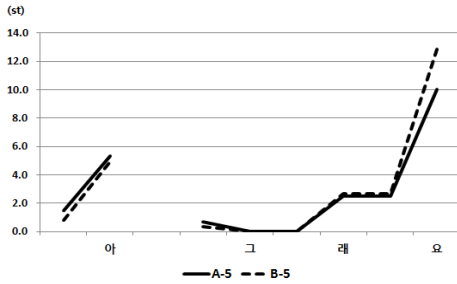
<그림 6> 의문문 :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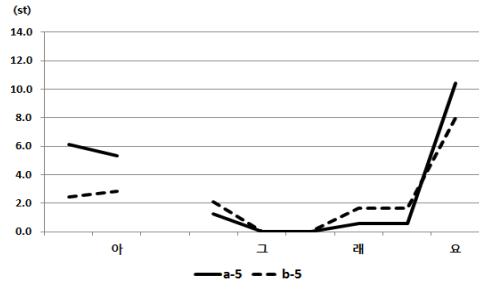
<그림 7> 평서문 : 낙담



<그림 8> 의문문 : 낙담



<그림 9> 평서문 : 기쁨



<그림 10> 의문문 : 기쁨

먼저, <그림 2>에서 <그림 11>에 나타낸 핏치 곡선을 보면 <그림 8>의 평서문: 낙담에 나타난 문말 평탄조, <그림 3>의 의문문 중립에 나타난 문말 하강조, 그 이외의 발화에서는 모두 문말 상승조가 나타나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결과는 최장원(2016)에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평가한 결과와 비교를 해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는 문말 하강조가 관찰 되지 않은 반면, 영어권 학습자의 의문문 중립의 49.8%의 중위권 발화에서 문말 하강조가 관찰 되었다. 즉, 중립과 낙담의 발화에서는 문말 평탄조가 영어권 발화자의 음성이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놀람, 의심, 기쁨에서는 문말 상승조가 모두 상위권에서 관찰 되었다. 또한 문말 평탄조로 나타나는 중립과 낙담의 발화에서는 약간의 상승조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중립과 낙담의 발화에 대한 모어 화자의 지각 판단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1의 중립 발화의 경우, 중립이 74.5%인 것에 비해 낙담으로 평가한 경우는 17.0%로 두 번째로 많으며, 약간의 문말 상승조를 동반하여 나타난 낙담 발화의 B-4 과 b-4의 경우, 중립으로 판단한 경우가 31.9%, 31.9%로 중립과 낙담의 발화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말 상승조로 나타나고 있는 놀람, 의심, 기쁨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화자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알 수 없는 음성만으로는 판단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의심의 발화는 중립, 놀람, 낙담으로의 판단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이 실험을 진행한 필자로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와 영어권 학습자의 발화의 평가 결과 모두 기쁨의 발화에 대한 일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 예상외의 결과였다. 최장원(2016)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결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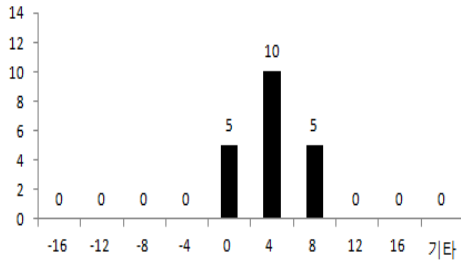
서는 30 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기쁨의 발화에 대한 전체 평균 일치율은 35.3% 였으며, 영어권 학습자의 기쁨의 평서문 발화의 평균 일치율은 22.6%, 의문문 발화의 평균 일치율은 19.0%의 결과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중 상위권에 위치한 발화는 100%의 일치율을 보였던 발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영어권 학습자의 경우, A-5 가 87.2%, a-5 가 74.5%에 그치고 있어, 중립, 놀람, 의심, 낙담, 기쁨의 5 가지 감정 중 가장 표현하기 쉽고 청자에게 전달 되기 쉬울 것이라 예측한 기쁨의 발화에 대한 평가 일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영어권 화자의 기쁨의 발화와 놀람의 발화와의 판단에서 충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서문 A-5 의 일치율이 87.2%인 것에 비해 놀람으로 판단한 결과는 12.8%, B-5 의 중위권의 일치율이 55.3%인 것에 비해 놀람으로의 판단은 36.2%, 의문문의 a-5 에 대한 일치율은 74.5%인 것에 비해 놀람으로 판단한 결과는 23.4%였다. 물론, 의문문 중위권의 48.9%의 일치율을 보인 b-5 의 발화에서는 문말 상승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람으로의 판단은 10.6%인것에 비해 중립으로의 판단이 31.9%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원인을 찾아내기까지는 약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점도 있었다. 그것은 목소리의 음질과 감성을 나타내는 자료없이 2 차원적인 자료인 핏치의 높고 낮음만으로 일반화 하는 것의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기도 하다.

### 4.3 문장 말 의문 부호의 유무에 따른 음조의 변화 양상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말에 나타나는 감정별 발화 「아 그래요」의 평서문 발화와 「아 그래요?」의 의문문 발화에서의 음조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평서문 문말의 「~요」와 의문문 문말의 「~요?」부분의 핏치 변화 폭의 분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 변화의 폭의 도수 분포를 <그림 12>에서 <그림 21>에 나타냈다. 의문 부호가 없는 평서문의 발화와 의문 부호가 있는 의문문의 발화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는 감정 발화는 중립<그림 12 와 그림 13>, 낙담<그림 18 과 그림 19>, 기쁨<그림 20 과 그림 21>의 발화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중립 발화에서는 +8st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는 학습자가 20 명중 4 명이 평서문의 발화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나타나는 발화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의심과 놀람의 발화에서는 문장 말의 의문 부호의 유무에 따른 음조의 변화를 보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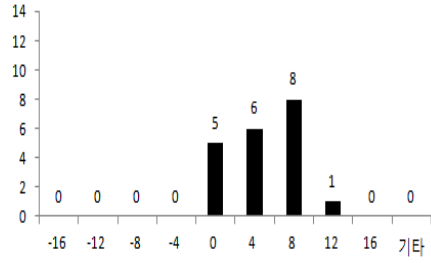
는 1명 정도의 결과에 그쳤다.

**평서문-중립-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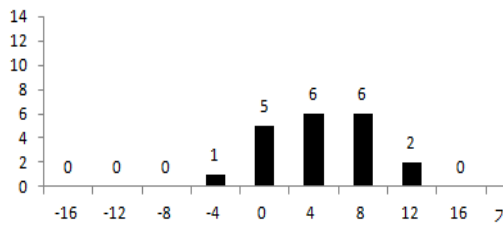
<그림 11> 평서문 -중립-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의문문-중립-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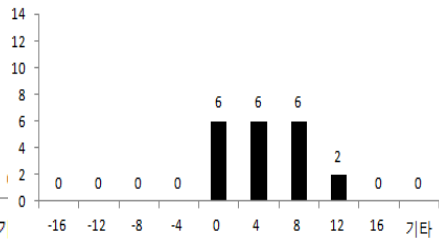
<그림 12> 의문문 -중립-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평서문-의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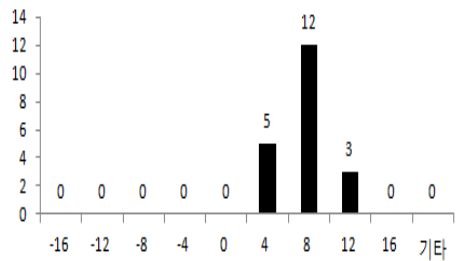
<그림 13> 평서문 -의심-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의문문-의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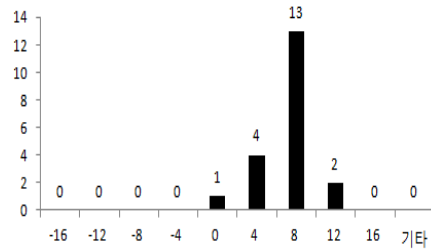
<그림 14> 의문문 -의심-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평서문-놀람-요**



<그림 15> 평서문 -놀람-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의문문-놀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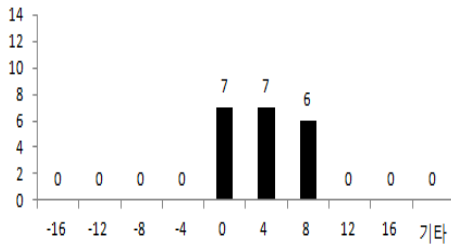


<그림 16> 의문문 -놀람-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마지막으로 기쁨의 발화의 결과를 보면, 평서문에서는 문말 음조가 하강조로 나타난 1 명과 0st~4st 사이의 상승폭으로 나타난 발화자가 4 명이었던 결과가 의문문의 발화에서는 2 명으로 줄고, +8st 이상의 상승폭으로 나타난 학습자는 평서문의 6 명이었던 결과에서 10 명으로 4 명이 상승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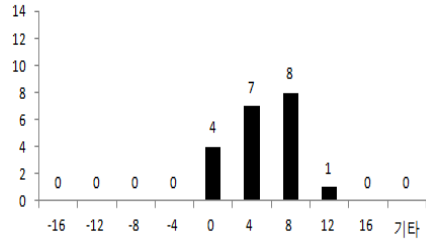
다음으로 낙담의 발화에서는 평서문에서는 0st~4st 사이의 상승폭으로 나타난 발화자가 7 명이었던 결과가 의문문의 발화에서는 4 명으로 줄고, +8st 이상의 상승폭으로 나타난 학습자는 평서문의 6 명이었던 결과에서 9 명으로 3 명이 상승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평서문-낙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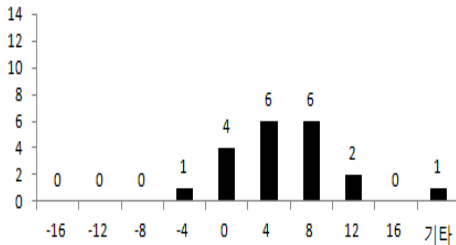
<그림 17> 평서문 -낙담-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의문문-낙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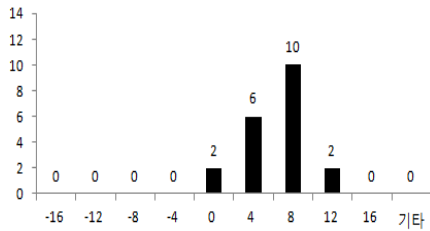
<그림 18> 의문문 -낙담-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평서문-기쁨-요**



<그림 19> 평서문 -기쁨-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의문문-기쁨-요**



<그림 20> 의문문 -기쁨- 요의 핏치 변화의 도수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문장 말의 의문 부호의 유무는 모든 학습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소수의 학습자들은 의문 부호는 상승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문말에서 감정의 표현 보다는 의문 부호가 갖는 문말 억양의 상승조 실현이라는 역할 수행을 선행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고찰

본고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감정별 억양의 특징을 파악, 특정화 하여 학습자에게 시각적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권 학습자 20 명이 발화한 5 가지의 감정별 발화를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발화한 총 200 개의 음성을 녹음 수록하였다. 학습자의 감정별 발화 내용이 한국어 모어화자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화자 47 명에게 청각 평가 실험을 실시하여 9,400 개의 청각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다음 세 과제를 밝히고자 했다.

- 과제 1: 감정 별 발화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 평가의 일치율 및 분포
- 과제 2: 감정 별 발화의 청각 평가를 기초로 한 상위권(A), 중위권(B)의 음향 분석 결과.
- 과제 3: 문말 억양 패턴과 문말 기호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한 음향 분석 결과

먼저 과제 1 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감정별 발화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가의 일치율 및 분포에 관해서이다. 「중립」 평서문의 발화에서는 38.8%, 의문문의 발화에서는 30.2%(이하 평서문(의문문))의 결과였으며, 「놀람」에서는 39.7%(38.2%), 「의심」에서는 18.0%(21.1%), 「낙담」에서는 54.8%(39.5%), 「기쁨」에서는 22.6%(19.0%)의 결과로, 전체의 평균 일치율은 34.3%(29.6%)였다. 이러한 결과의 평가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화살표의 좌측은 평서문의 감정별 발화의도를 의미하며, 우측은 청각 평가 결과치가 높은 순으로 나타냈다.

중립	→	<b>중립</b> > 낙담 > 의심 > 놀람 > 기쁨
놀람	→	<b>놀람</b> > 기쁨 > 중립 > 의심 > 낙담
의심	→	낙담 > 중립 > 놀람 > <b>의심</b> > 기쁨
낙담	→	<b>낙담</b> > 중립 > 의심 > 기쁨 > 놀람
기쁨	→	놀람 > 중립 > <b>기쁨</b> > 의심 > 낙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가 결과를 나타낸 4.1 의 <표 3>과 <표 4>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말 할 수 있다.

- ①.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발화에서는 중립과 낙담의 구분이 어렵다.
- ②.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발화에서는 놀람의 발화가 기쁨으로 판단되거나, 기쁨의 발화가 놀람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많다.
- ③.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의 발화 중 「의심」의 발화가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과제 2 감정 별 발화의 청각 평가를 기초로 한 상위권(A), 중위권(B)의 음향 분석 결과에 대해서 상기의 4.2 에서 나타낸 <그림 2>에서 <그림 11>까지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①.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발화를 한국어 모어화자가 청각 평가한 결과, 중립과 낙담은 문말 평탄조로 발화된 음성이 상위권에 위치.
- ②. 영어권 학습자의 [아 그래요] 발화를 한국어 모어화자가 청각 평가한 결과, 놀람, 의심, 기쁨의 발화에서는 문말 상승조로 실현된 음성이 상위권에 위치
- ③. 「의심」의 발화가 학습자에게는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또는 모어 화자에게 가장 전달 되기 어려운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과제 3 으로 설정한 문말 억양 패턴과 문말 기호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한 음향 분석 결과를 보면, 문장 말의 의문 부호가 있으므로 해서 문

말에서 감정의 표현 보다는 의문 부호가 갖는 문말 억양의 상승조 실현을 선행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학습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3 가지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립과 낙담의 감정의 발화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청각 판단 결과에서는 발화자 의도대로의 중립과 낙담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가장 높기는 하였지만, 중립과 낙담의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이 두 감정 표현은 문장 말에서의 상승조가 나타나지 않거나 4.2 의 <그림 9>에 나타낸 의문문의 낙담의 핏치 곡선 결과와 같이 다른 감정 표현에 비하여 완만한 상승조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놀람과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결과에서는, 놀람의 발화가 기쁨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많았고, 반대로 기쁨의 발화의 음성이 놀람으로 판단되는 결과도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평서문 발화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며, 놀람과 기쁨의 의문문 발화에서는 놀람과 기쁨으로 판단되는 결과와 더불어 중립으로 판단되는 결과도 많이 나타났다. 감정에 있어서 놀람과 기쁨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기기는 하지만 핏치 곡선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로 평서문과 의문문, 그리고 각 감정별 발화의 상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본고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 표현을 일반화 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준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핏치의 높고 낮음만으로 일반화 하는 것의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기도 하다. 즉 음성의 밝음과 어두움등을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 두고 과연, 한국어 문말 억양 교육의 방법을 고안하고자 할 때 기쁨과 놀람의 감정은 명확하게 음성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감정인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리라 본다. 놀라면서 기쁨을 표현 할 수 있고, 기쁨과 동시에 놀라움의 표현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음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면 감정 분화의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말하자면 중립, 낙담과 의심, 그리고 기쁨과 놀람을 한가지의 감정으로 묶어서 3 가지 감정으로의 설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쁨과 놀람의 억양을 어둡게 표현하면 의심으로 전달 될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추가 실험에서 밝히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음성 수록에 참가해 주신 볼더의 콜로라도 대학 한국어 수강생 여러분들과 음성 청각 평가에 참가해 주신 강원 대학의 Kamino Mikako 교수님과 강원대학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参考文献

- Grice, H Paul(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By P.Cole and J. Morgan, 41-58 NY: Academic Press
- Jun.S.A.(1993/96)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Published by Garland Press, New York,1996
- Jun.S.A. & Oh.M.R.(1996), A Prosodic Analysis of Three Types of Wh-Phrases in Korean, Language and Speech 39-1, pp37-61.
- Jun.S.A.(2000). K-ToBI (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ver 3.1. in November 2000)  
<<http://www.linguistics.ucla.edu/people/jun/ktobi/K-tobi.html>>(2015 年 4 月 14 日閲覧)
- Jung M.S.(2002)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Intonation by Basic Pattern」 國際韓國語教育学会、『韓國語教育』、第 13 卷 1 号、pp225-241 (정명숙(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 13 권 1 호, pp225-241)
- Jung M.S.(2003) 「The Intonation of Japanese and Chinese Korean-learners」 國際韓國語教育学会、『韓國語教育』、第 14 卷 1 号、pp233-247 (정명숙(2003)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 14 권 1 호, pp233-247)
- Kim E.A. (2002) 「発音教育資料開発研究」 國際韓國語教育学会、『第 12 次学術大会発表要旨集』 pp229-238 (김은애(2002), “발음교육 자료개발 연구”, 한국어교육학회 제 12 차 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29-238)
- Kim E.A. et(2008) 「Methodology of Teaching Korean Intonation」 國際韓國語教育学会、『韓國語教育』、第 19 卷 2 号、pp93-123 (김은애, 박기영, 박혜진, 진문이(2008)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 19 권 2 호、pp93-123)
- Ladd.D.R.(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G.(1996) 「韓國語談話表紙語 “グレ” の意味研究」、談話・認知言語学会、『談話と認知』、第 3 卷、pp1-26(이한규 (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담화와 인지』. 제 3 권 ,pp.1-26)  
<http://dlps.nanet.go.kr/DlibViewer.do?cn=KINX2006041675&sysid=nhn>
- Lee H.Y.(1996) 『国語音声学』 太学社、pp219-244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pp219-244)
- 長谷川由起子(2005) 「The Effect of Korean Tonal Education for Japanese Native Speakers -Focused on the Pronunciation of Initial Stops and Affricates」 國際韓國語教育学会、『韓國語教育』 第 16 卷 3 号、pp379-404 (하세가와 유키코(2005)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 대한 음조 교육의 효과 : 어두 파열음 및 파찰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제 16 권 3 호、pp379-404)
- 三木理(2015) 「韓国における日本語教科書の問題点-「そうですか」の対訳について-」、第 2 回日本語教育学会研究集会ポスター発表 (於 : 名古屋大学 2015.06.13)
- 박기영(2010) “한국어 발음 교사와 한국어 발음 교육 과정에 대한 관건”,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 34 차 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pp39-44
- 오미라·이혜영(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말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09-125.
-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 제 13 호, 한국언어학회, pp 129-151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崔壯源(2016) 「韓国語母語話者の感情別イントネーション-「아그래요」を中心に」 『韓国語教育研究』 第 6 号、日本韓国語教育学会、p 130-150
- 崔壯源(2012) 「韓国人日本語初級学習者から生成される高低幅-母語話者評定に基づいた音響分析結果から-」 第 22,日本語教育学会、pp25-38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 International Liberal Arts)

jpallanche@yahoo.co.jp

## 韓国語教育研究 第7号

ISSN 2186-2044

2017年 9月 10日 印刷

2017年 9月 15日 発行

発行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 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e-mail: jaklemejiro@gmail.com

編集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委員長 /金世徳 kim@ashiya-u.ac.jp)

印刷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983-0035 宮城県仙台市宮城野区  
日の出町二丁目 4-2  
TEL 022 (236) 7161 (代) / FAX 022 (236) 7163